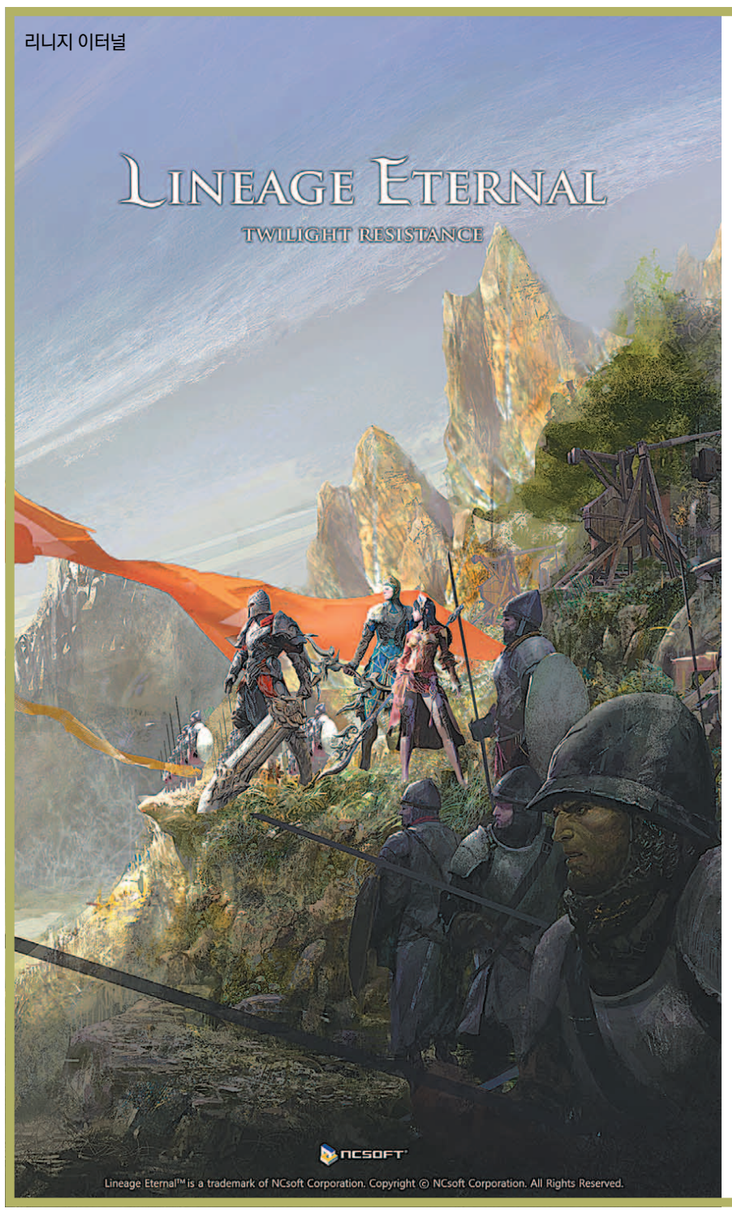

리니지 이터널

PC게임 기대작들, 지스타서 베일 벗는다

20~23일 벡스코서 '지스타2014'

엔씨소프트 '리니지 이터널' 첫 시연 예정
넥슨 '메이플스토리2' 액토즈 'FF14' 출품
블리자드는 美 블리즈컨서 'HOS' 등 공개

2015년 PC온라인게임 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기대작들이 11월 일제히 베일을 벗는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크게 위축됐던 온라인게임 시장의 부활을 이끌 기대 신작들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달 개최될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4'에선 다양한 대작 PC온라인게임들이 관람객을 만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서 열리는 '블리즈컨 2014'에서 공개될 신작에 대한 게이머들의 관심도 뜨겁다.

●인기게임 후속작 눈길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14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2013년 2261부스보다 13% 성장한 2558부스가 채워진다. 무엇보다 일반 소비자 대상(B2C)관에는 신작 온라인게임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먼저 인기 게임의 후속작 출품이 눈에 띈다. 업계 맏형인 엔씨소프트는 2년 만에 대작을 들고 지스타 나들이에 나선다. 주인공은 '리니지' 시리즈의 최신판 '리니지 이터널'이다. 개발명가 엔씨소프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온라인게임의 전투 패러다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차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1년 지스타 당시 영상을 공개해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번엔 최초의 시연버전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플스토리2

넥슨은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후속작을 출품한다. 최근 알파테스트로 일반 유저들에게 첫 선을 보인 '메이플스토리2'는 쿼터뷰 방식의 풀3D MMORPG. 블록으로 구성된 독특한 세계를 바탕으로 개성 있는 캐릭터 꾸미기와 다이내믹한 전투액션을 쉬운 조작만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나만의 의상이나 집 만들기 등이 가능한 이용자 제작 콘텐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새 프로젝트도 풍성

그 밖에 2015년을 빛낼 다양한 신작 온라인게임들도 지스타를 찾는다.

스마일게이트의 신작도 그 중 하나다. 이 회사는 베일에 싸여있던 대작 MMORPG '프로젝트T'를 처음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언리얼엔진3로 수년 동안 개발한 완성도 높은 대작으로 알려졌다. 또 2차 테스트를 진행 중인 MMORPG '아제라'와 함께 미공개 신작도 출품할 가능성이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파이널판타지14'를 출품한다. 스퀘어에닉스의 인기게임 '파이널판타지'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탄탄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방대한 콘텐츠가 특징이다.

엑스엘게임즈는 '문명온라인'을 선보인다. 일명 '악마게임'이라 불리는 '시드 마이어의 문명'을 기반으로 한 MMORPG. '한국의 MMORPG 아버지'라 불리는 송재경 대표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 더 큰 관심을 끈다.

엔씨소프트의 미공개 신작과 넥슨의 '공각기동대' 지적재산권(IP) 활용 게임도 이번 전시회에서 베일을 벗을 가능성이 있다.

●블리자드 신작도 관심

지스타2014에 일주일 앞서 신작을 공개하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도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7일과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단일 게임사가 주최하는 행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블리즈컨2014를 연다. 이번 블리즈컨은 새로운 게임 공개는 물론 글로벌 파이널 등 e스포츠 토너먼트, 전설적인 록밴드 메탈리카의 폐막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 중 게이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새롭게 공개되는 신작.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알파테스트를 진행 중인 공성대전액션(AOS)게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스타크래프트2'의 확장팩인 '공허의 유산'은 물론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신규 콘텐츠 정보가 공개될 지도 게이머들의 관심거리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박정환·김지석, 삼성화재배 4강 진출 '한국 바둑의 희망'

5~7일 각각 中 탕웨이싱·스웨와 맞대결
작년 한국바둑 무관…자존심 회복의 기회

박정환 9단과 김지석 9단이 삼성화재배 첫 결승진출을 노린다.

2014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준결승 3번기가 5~7일 대전광역시 덕명동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열린다. 결승 진출티켓을 놓고 벌이는 3번기는 한중전으로 벌어진다. 박정환은 탕웨이싱 9단, 김지석은 스웨 9단과 맞대결을 펼친다.

박정환은 한국 프로기사 랭킹 1위의 최강자지만 아직까지 삼성화재배 결승무대를 밟아보지 못했다. 탕웨이싱과는 올해 두 번 맞붙어 2전 전승을 기록 중이다.

박정환은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열린 본선 32강전에서 스웨에게 패했다. 이후 옌환 5단과 저우루이양 9단을 연파하고 기사회생하며 4강에 올랐다. 2011년 제24회 후지쓰배 우승 이후 3년 만의 세계대회 우승사냥에 나선다.

김지석은 박정환에 이은 랭킹 2위의 강자. 상대인 스웨는 중국 랭킹 1위다. 둘 간의 맞대결은 이번이 네 번째. 지난 대결까지는 1승2패로 김지석의 열세다.

10월16일 대전광역시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열린 삼성화재배 8강전을 통해 준결승 3번기에 진출한 한·중기사들. 탕웨이싱, 박정환, 스웨, 김지석(왼쪽부터).
사진제공 | 한국기원

국내 랭킹 1·2위의 4강 진출에 바둑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은 지난해 6개의 메이저대회 우승을 모두 중국에 빼앗겼다. 올해 초 LG배 우승컵도 중국의 차지.

7연속 중국의 우승을 지켜봐야 했던 한국은 속기대회인 8월 TV아시아바둑선수권에서 이세돌이 우승하며 회생하는 듯했지만 한 달 후 열린 백령배에서 결승진출에 실패하며 또 다시 중국의 우승 장면을 봐야 했다.

한국이 세계대회 개인전에서 단 하나의 우승컵 없이 무관의 해를 보낸 것은 1995년 이후 18년 만이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번 삼성화재배가 자존심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다. 박정환과 김지석이 결승에 진출할 경우 2007년 제12회 삼성화재배 때 이세돌-박영훈이 결승대결을 벌인 이후 7년 만에 국내 선수끼리의 대결이 성사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각오해야 한다.

준결승 3번기는 삼성화재배 공식사이트를 비롯해 사이버오로 등 국내외 주요 바둑사이트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생중계한다. KBS 1TV는 오후 1시부터 방송한다.

1996년 출범한 삼성화재배는 전면오픈제, 완전상금제, 여자조 및 시니어조 도입, 중식시간 없는 논스톱 대국진행 등 세계바둑대회의 혁신을 이끌어 온 도전과 실험의 대회다. 최근에는 해외 아마추어에게도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월드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총 상금 규모는 8억원, 우승상금은 3억원이다. 한국은 2012년 이세돌 우승 이후 삼성화재배의 우승 맥이 끊어졌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햇반, 즉석밥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CJ, 신제품 '큰눈영양쌀밥' 생산 공정 공개
R&D 차별화…일상식서 건강식으로 변화

국내 즉석밥의 대명사인 '햇반'이 일상식에서 건강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31일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CJ제일제당 햇반공장에서 '햇반 R&D 세미나'를 개최하고 신제품 '큰눈영양쌀밥(사진)' 생산 공정을 공개했다. 직접 본 햇반 생산 과정은 총 6단계 프로세스를 거쳤다. 햇반이 다른 경쟁사 제품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당일 도정 시스템이다. 도정 일자가 짧을수록 밥맛이 좋은데, 공장 내에 도정 시스템을 갖추고 도정한 지 하루 이내의 쌀만을 이용해 신선도와 맛을 높였다.

도정된 쌀은 쌀 씻기와 불리기, 탈수 과정을 거친 후 압력밥솥의 원리를 적용해 140도, 3기압 이상의 고온·고압 상태에서 밥으로 완성된다. 완성된 밥은 반도체 공정 수준의 클린룸에서 살균한 포장재를 이용해 포장된다. 포장을 마친 뒤에는 뜸을 들이는 효과로 15분간 뒤집어 증숙 과정을 거친 뒤 마지막 단계로 15분 동안 차가운 물에서 급속 냉각한다.

공정을 살펴보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생쌀이 용기에 담겨진 상태에서 밥으로 완성된다는 점이다. 환경 호르몬이 걱정되겠지만 용기 재질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뤄진 '폴리프로필렌(PP)'이다. 열을 가해도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CJ제일제당 측 설명이다.

●햇반 인기 비결은 차별화 된 R&D 역량

'큰눈영양쌀밥'은 CJ제일제당이 서울대학교와 함께 공동 개발한 '큰눈영양쌀(서농 17호)'로 만든 햇반이다. 쌀의 영양이 모여 있는 쌀눈 부위를 기존 쌀보다 3배 더 키우고 도정 과정에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배아 부분을 함몰형으로 만든 특수한 신품종이다. 일반 백미로 도정해도 쌀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쌀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감마오리자놀과 필수 지방산 리놀렌산, 비타민, 식이섬유 등의 영양분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CJ제일제당 측 설명.

CJ제일제당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니즈가 강한 소비자들도 즉석밥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할 수 있도록 건강식으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햇반 매출을 2018년 2500억원, 2025년 1조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햇반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신선편의식품센터 권순희 상무는 "앞으로는 쌀품종 개발부터 재배관리, 수확 후 관리, 보관, 도정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장 신선한 쌀로 1년 내내 갓 지은 밥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큰눈영양쌀밥이 대표적인 성공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조항우, 6년 만에 CJ슈퍼레이스 왕좌 재탈환

슈퍼 6000클래스 최종 8R 37분26초822
디펜딩 챔프 황진우와 3점차…극적 우승

CJ슈퍼레이스 최고 클래스인 슈퍼 6000클래스 원년(2008년) 챔피언 조항우(아트라스BX팀)가 6년 만에 다시 왕좌에 올랐다.

조항우는 2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열린 '2014 CJ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종 8라운드 결선에서 37분 26초822(15바퀴, 84.225km)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 디펜딩 챔피언 황진우(CJ레이싱)를 9.906초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조항우는 7라운드까지 드라이버 포인트 순위에서 황진우에 4점 뒤진 2위였다. 확실한 챔피언 등극을 위해서는 우승이 반드시 필요했다. 조항우는 이날 우승으로 25포인트를 추가하며 종합포인트 123점을 기록, 2위를 기록한 황진우(종합포인트 120점)를 3점차로 제치고 극적으로 시즌 챔피언에 등극했다.

조항우는 "선의의 경쟁 속에 펼쳐진 치열한 레이스였다. 시즌 챔피언이라는 영광스런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합 레이스로 펼쳐진 GT 클래스에서는 이재우(쉐보레 레이싱)가 정연일(팀106)을 2.311초 차로 제치며 시즌 챔피언에 올랐다.

2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열린 2014 CJ슈퍼레이스 최종 8라운드에서 우승하며 2014시즌 통합 챔피언(슈퍼6000클래스)에 오른 조항우가 V자를 그리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 | CJ슈퍼레이스

한편 8라운드로 올 시즌을 마친 슈퍼레이스는 내년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 3번의 해외 라운드(중국 2회, 일본 1회)를 진행한다. 또한 올해 시범적으로 열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중 통합전에 일본까지 참여시켜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을 내년 8월(5라운드)에 개최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아이폰6 보조금 대란…방통위 "이통3사 경고"

애플 '아이폰6'에 법에서 정한 상한선보다 높은 보조금이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이동통신 3사에 경고조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 이후 처음 불법 보조금 지급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에게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일 새벽 서울 일부 판매점에선 아이폰6(16GB)에 최고 7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보조금이 최고가 요금제를 기준으로 19~2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명백한 불법 보조금이다.

하이원리조트, 소믈리에 추천 와인 12종 판매

하이원리조트는 11월 한 달 동안 소믈리에 추천 와인 12종을 선정해 판매한다. 강원랜드 호텔 3층 '하이원 OV'에서 판매하며 프랑스, 칠레, 스페인, 이탈리아 등 6개 나라의 와인을 선정했다. 와인 종류는 카르멘 그란 리저브, 샤또 끌락, 마스 라 플라나 등 12종이며, 포도품종 또한 카베르네 쇼비뇽, 멜롯, 말벡 등 다양하다. 하이원은 11월 추천와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10% 할인 해택을 제공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시음 기간에는 와인잔, 디켄터, 고급스크류 등의 사은품도 제공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롯데월드에 산타가 온다

7일부터 '해피 크리스마스' 시즌 축제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7일부터 12월25일까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하는 '해피 크리스마스(사진)' 시즌 축제를 연다.

축제 기간 동안 새로운 퍼레이드 '해피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매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00여 명의 배우들이 눈의 요정, 미녀 산타, 장난꾸러기 눈사람 등의 캐릭터로 분장해 장난감 기차, 초대형 아이스크림 등을 형상화한 퍼레이드 차량을 타고 행진한다.

12월1일부터 25일까지 하루 3회 진행하는 '산타가 주는 특별한 선물'에서는 산타의 집에서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가 직접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한다. 자녀, 연인, 친구 등에게 산타를 통해 선물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작은 기차를 타고 도깨비 마을을 도는 퍼레이드 '크리스마스 언더랜드 투어'도 축제에 맞춰 새로 론칭했다.

이 외에 산타와 요정들이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고객 참여 퍼레이드 '산타 빌리지 투어', 신데렐라 이야기를 테마로 한 가족형 뮤지컬 '신데렐라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비롯해 '로티스 크리스마스 트램카', '로티스 크리스마스 뮤직 쇼', '아이스링크 밴드 쇼' 등 크리스마스 축제에 맞춘 볼거리들을 준비했다.

한편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롯데호텔은 11월 한달 간 '온 가족 행복여행 페스티벌'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어드벤처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총 52명에게 롯데호텔(괌, 하노이, 제주, 월드, 부산) 숙박권과 롯데호텔 월드 라세느 뷔페이용권을 선물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